

교만하지 말라

잠언 16:16-20, 야고보서 4:1-10

최정웅 목사님

여러분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건강하고 평안해 보이시니까 감사하다. 오늘은 RU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어서, 잠언을 계속 묵상하는 중이다. 15, 16장에 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주제를 같이 나누겠다.

역사와 현장을 보면, 교만 때문에 멸망한 개인과 단체를 많이 볼 수 있다. 이것다 생각하고 교만함에 빠져서 선거를 치렀는데 참패하는 경우도 있다. 전쟁에서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져다가 어이없이 패배한 장군들도 많았다. 폼페이우스 장군은 로마 나라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줄리어스 시저와 전쟁을 하게 되었다. 폼페이우스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훨씬 많다. 돈도 많다. 그래서 전쟁했다 하면, 자기를 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 자가 이기겠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내일이 전쟁인데 오늘 무엇을 했나 하면, 이기고 나서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싸우고 있었다. 폼페이우스 옆에 있던 귀족들이 자리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그러나 그렇게 교만하게 맞서 싸웠는데 참담하게 무너졌다. 바벨론왕 벨사살은 교만에 빠져서 왕이 된 후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잔과 그릇에 술을 따라 먹으며 대 잔치를 벌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다.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다.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 내가 달아보니 모자라다는 뜻이었다. 그날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우상 섬기는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이 감히 자기가 무언가를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내 힘으로 뭔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결코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 그래서 잠언 16:5, 야고보서 4:6, 베드로전서 5:5-6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있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교만할 수 없는 이유를 깨닫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이다.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다.

1. 교만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다.

(1) 첫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룬 게 아니지 않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겪는 근본문제와 살아가면서 겪는 우상숭배 문제, 정신문제와 육신문제, 내세문제와 후대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반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8에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한다. 로마서 5:8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다고 했다. 어떤 노력, 어떤 선행,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끗이, 영원히 해결해 버리신 것이다. 우리는 에베소서 2:8-9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나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9-10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1:15-16은 말씀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 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한다.

(2)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산소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캐나다에 가 보니까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숨을 쉬기가 편하고 좋았다.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참 좋겠다, 더 감사하겠다’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태양빛을 돈을 주고 사서 쬐다고 하면, 공기를 사서 마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이다. 더 귀한 것일수록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명을 값없이, 태양을 값없이 주셨다. 공기를 값없이 주셨다. 이런 것을 일반은총이라고 한다. 이것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세밀히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13에 보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했다. 요한복음 14:26-27에,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고 했다. 우리가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빌립서서 4:19은 말씀했다. 마태복음 6:32-33의 말씀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전부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다.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121:1-6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고 계신다’고 말씀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다.

(3) 세 번째 교만할 수 없는 이유다. 교만은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원래 사단 자신이 교만 때문에 생겼다. 천사가 교만하여 스스로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자가 바로 사탄이다. 이 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타락시켰다. 교만을 사용한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저걸 따먹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보면 몰라, 이 바보야?” 이렇게 인간을 유혹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그 말을 가지고 인간이 속아서 인간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떠난 죄인이 된 것이다. 지금도 사탄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잠언 16:18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다.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것 보셨는가? 괜히 구역질이 나지 않나?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자리에 절대 서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요셉을 존경하는데, 요셉이 노예생활을 멋지게 했다. 감옥에서도 잘 했다. 그것도 귀하지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들, 조카들이 다 왔는데, 먹일 돈이 없었다. 집도 없었다. 줄 집이 없었다. 땅도 없었다. 그러면서, “아버지, 왕에게 가서 인사할 때 인사를 한 번 드려 보세요. 뭐 하는 사람이나 물어보거든, ‘우리는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임금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서 인사하는데 야곱이, ‘저는 137년을 살았는데 수고와 고통뿐이었습니다.’하면서 왕을 축복하고 왕에게 인사한다. ‘오이구, 요셉 총리가 자기 아버지 하나 챙겨주지 못하는구나.’ 요셉이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았다. 모든 애굽의 백성과 땅을 왕에게 다 돌렸다. ‘오이구, 아버지 줄 것 정도는 하나 챙겨줘도 괜찮았는데.’ 하면서 고센 땅을 야곱에게 준다. 애굽 사람들은 어차피 가족 기르는 것을 싫어했다. “여기서 살면서 왕궁에서 쓸 고기를 여기에서 길러 주시오.” 그런 것을 보면, 요셉 같은 공무원이 얼마나 그리운가.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요셉을 일곱 램뿔트 중 처음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겸손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겸손의 으뜸이신가. 모든 이름, 모든 왕, 모든 장군, 모든 학자, 모든 박사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않은가.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교육 종교에 침투해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는다. 그렇게 할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 언약 가진 사람이다.

2. 참된 겸손

그러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우리가 어떤 겸손을 가져야 하겠는가? 그것이 잠언 15, 16장 말씀의 내용이다. 침사량 가족 여러분, 참된 겸손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1) 첫 번째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참된 겸손이다. 이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잠언 16:1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다.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경영하는 것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하는 것이다. 잠언 16:9에도 말씀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잠언 16:3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겸손한 자다.

(2)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 맡길 수 있겠는가? 세 가지 답이 있다.

① 첫 번째로, 잠언 15:12에,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교만한하면 질문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꾸 지혜 있는 자를 찾아가야 한다. 가서 질문해야 한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수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결국 패배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여호와께 질문해야 하고, 전도자에게 질문해야 한다.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한다. 지혜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록 질문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인도록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참된 겸손이다. 지혜 있는 자를 찾아가라. 주님 앞에 물어라. 주님에게 답을 구해라. 그게 겸손한 자의 삶이다.

② 두 번째 방법이 있다. 잠언 15:32-33에 보니까,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훈계 받기를 기뻐해야 한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3:16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다. 이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훈계 듣는 것을 기뻐해야 영혼이 살아난다. 교만한 자는 완악하여 마음에 말씀을 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훈계를 거절한다.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번에도 가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제 갈 길을 찾아가던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했다. 그런 이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③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찾아보면, 잠언 16:19에 말씀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겸손한 자와 팀이 되면 더 승리할 수 있다.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피라미는 피라미끼리 논다고, 똑 같은 사람끼리 놀게 된다. 겸손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시1:1-6). 늘 비판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된다. 한 마디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불평한다. 한 가지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자기도 그렇게 되어 버린다. 조심해야 한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실천하는 팀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런 분들과 같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 겸손한 자와 팀을 이뤄라. 그것을 가지고 생각이 가장 높은 곳에 두고,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두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거기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복음을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는 것이다. 전도가 안 되는가?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과 같이 다녀 보라. 3개월 만 같이 다녀 보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되어지게 되어 있다. 되기는 뭐가 되냐 하고 비판만 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전도를 한 사람도 못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제일 뭐라 하는 게 빈 자리가 많다고 자기가 채우면 되지. (웃음) 자기는 한 자리도 안 채우면서. (웃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하게 된다. 특히 전도자로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한다. ‘그것도 안 되냐?’ 하는 것,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상처되는 일인지 모른다. 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너무 잘 했다

고 본다. 신출내기 목사인 아볼로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갈등 없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아마 식사 초대를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바울 선생님과 같이 살았어요. 낮에 같이 일을 했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평신도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갈등 없이 은혜를 받았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하고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아볼로가 기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볼로는 구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구약 역사를 너무 잘 알았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전부 새로 보이는 것이다. 재해석을 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가 아닐까 싶다.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추측하는 것이 이것이다. 여러분이 말 한 마디를 내뱉을 때 교만한 말을 내뱉거나, 나 때문에 사람이 넘어진다면, 그것이 전도를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다. 특별히 복음 가진 자가 말할 때 조심해야 한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다. 이 참된 겸손을 실천하는 답을 정리해서 가야 한다. 그 답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예배 학자가 어느 날 이야기했다.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 사람이 대신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예배 인도하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위엄있는 눈빛으로 찬양대를 바라보더라. 그게 자기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꼭 찬양대의 찬양을 자기가 받고 심사하고 하는 느낌이었다. 나도 전에는 그렇게 서 있었는데, 예배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시다. 그래서 인도자는 찬양 때 조용히 자리를 피하고, 회중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신해서 받을 자는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잘 하려고 하다가, 충성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럴수록 겸손해야 한다. 어릴 때, 문 밖으로 나가서 달려가 보면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기울이 되면 벼가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더라. 또 어릴 때 본 광경 중 하나다. 들에는 꽃뿔이 있었다. 이 뿔을 잡는 방법이 있었다. 노래를 부르고 뿔을 부르고 하면, 뿔이 뿔뿔이 고개를 든다. 그렇게 고개를 들고 뿔뿔이 서면, 그때 목을 딱 치는 것이다. 그러면 대번에 목이 부러져서 죽는다.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때는 쳐도 안 죽는데, 고개를 뿔뿔이 세우면 얻어맞으니까 죽더라. 정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것을 나는 삶에서 배웠다.

잠언 15:31에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고 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귀를 제대로 열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잠언 16:20에 말씀했다. “말씀에 삼가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잠언 15:8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다. 잠언 15:29에 보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했다.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염려, 인본주의, 불신앙을 과감하게 던져 버려라.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이기 때문에 다 버려야 한다. 내가 하려고 하는 교만이기 때문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교만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한다. 참된 겸손으로 현장에서 응답받는 한 주간 살기를 바란다.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여라.

“주님, 감사합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잠언서를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 16장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저희의 것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의 진수를 알수록 겸손하게 하시며, 깨달을수록 겸손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고 서울시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이번 주간도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